

기고

강 순 팔 화순군의회의장



화순, 사랑하기에 걱정일레라!

2018 화순 국화향연 '김삿갓이 머문 국화동산으로'를 마치고 나서, 올해의 2018 화순국화향연은 그야말로 만민사례였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열정 다하신 집행부, 무엇보다도 질치부심 걱정과 몸으로 행하신 화순군민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축제명과 콘텐트 주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힐링푸드, 테라피 화순 등을 통한 많은 경험들을 총체적으로 묶어 '국화향연'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군 집행부의 의지와 실행사업, 더 나아가 '화순'이라는 자부심 고양에 초점을 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은 4차산업, 6차농업, 바이오메디컬, 유네스코지정도시(무등산권세계지질공원과 고인돌), 아동, 고령, 여성친화도시의 도시장생의 인증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2018국화향연'에서 잘 입증되었다 생각합니다.

화순군의 각 전역이 도시재생과 각종 현안사업으로 하루하루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 화순의 진정한 도시장생을 생각한 자의 단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멤포드(Mumford, Lewis)는 그의 저서 '도시의 문화'에서 도시의 발전과 쇠퇴의 윤희설을 전개했습니다.

21세기 도시 창생의 기본 사상은 '급진경제에서 생명경제로 전환'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경제란 시민의 생명과 창조력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창조

의 무대로써 도시의 기능을 충실히 하려는 것입니다. 20세기에는 생산의 효율성과 정밀도로 경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방과 복제의 시대를 지나 창조

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발휘시키며 협동과 연대로 창조력을 확대하고 재생산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화순에게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창조성입니다. 창조력이란 신기한 것을 탐구하거나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채집하는 능력을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창조력은 특수한 전문분야의 지식과 규칙 그리고 전문적인 방법에 토대를 두고 사고할 때 발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력이란 지식과 기능에 기초한 상상력이 결합하여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인 것이죠. 도시장생의 전문지식과 기술은 어떻게 습득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도시와 지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행복한 도시',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은 도시'를 회고하여 다른 도시의 성공 사례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발전한 도시의 사례를 모델로 문화전략, 관광개발, 경관정책, 아트 디렉션, 이벤트 계획, 마케팅, 커뮤니티케이션, 프로젝트 디자인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모방하려고 애를 써온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장생에는 표준 설계도가 없고 레시피도 없습니다. 모든 도시는 각자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개별 도시가 채용하고 있는 각 분야의 기술과 행동이 무엇에 입각하여 전개되고 있는지를 해석하지 못한다면 다른 도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표면적 기술만 모방한다면 예산과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고와 접근 방식이라고 하겠습니까. 지역의 미래, 성공과 실패는 지역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4차 산업의 도래와 모든 것이 생소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 금융 위기는 도시를 경영하는 방식에도 작용하여 '창조도시'에 대한 지향점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금융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번영을 자랑하던 세계도시(world city)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한 때의 번성 후 침몰의 길을 걷고 있던 일부 도시들의 성공적 경영을 바라보면서 창조도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창조도시라는 슬로건과 함께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도시장생의 새로운 희망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창조도시라는 발상의 적용은 도시장생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목표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창조(創造)한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 내는 것이며, 만들어 낸 것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社說

의원 의정비 인상 자제해야

지방의회가 경기 불황과 최악의 실업률은 외면한 채 의정비 인상에만 눈에 불을 켜고 있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전국 광역·기초의회들이 앞다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저민경제와 국내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을 외면한 채 지방의원들의 이익만 챙긴다'는 비난도 나온다. 각 지방의회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의정활동비' 대신 '월정수당'을 올리는 방식으로 의정비를 올리려 하고 있다. 월정수당은 지난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인 인상이 가능해졌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2.6%(98만원, 연 총액 기준)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반영해 기존 3776만원이던 의정비를 3874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인상된 월정수

당에 의정비 1800만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광주시의원 의정비는 1인당 5674만원이 된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급 개념의 수당이다. 지방의원들은 여기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연구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의정활동비'를 합쳐 지급받는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 1800만원(연 총액), 기초의원 1320만원이다. 전국 기초의회에서도 의정비 인상 요구가 붓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이나 전문가들의 시선은 좋지 않다. 월정수당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법 개정이 되자마자 의정비 인상에 목을 매는 모양새로 비치고 있어서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주지 않은 채 의정비만 올리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합심한 의회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臣 陛下 신하 신  
伏 御前 엎드릴 복  
戎 兵장기 용  
羌 오랑캐 강

臣 伏 戎 羌

▷ 뜻: 이상(以上)과 같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 덕에 용(戎)과 강(羌)도 항복(降伏)하고자 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출혈시 응급처치법

구급대원으로서 구급활동을 하다보면 각종 사고현장에서 다양한 출혈환자를 자주 접하게 된다. 출혈이란 체내의 혈액이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부터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출혈부위에 따라 체내 밖으로 보이는 외부출혈, 장기 등에 출혈이 보이는 내부출혈로 구분된다.

혈액은 정상 성인은 체중의 7%(70ml/kg)에 해당하는 혈액을

체내에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혈액량의 10% 이상이 출혈하게 되면 위험하며 특히 유아는 30ml 정도의 소실로도 쇼크(실신)에 빠질 수 있어 신속한 지혈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지혈 방법으로는 가장 보편화된 방법으로써 출혈되는 상처부위를 거즈나 거즈가 없을 시는 깨끗한 수건으로 덮고 손으로 직접 압박하는 방법이 있다.

출혈이 멈춘 후에는 거즈를 덮고 압박붕대로 감아준다.

만약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혈액이 묻은 거즈를 제거하지 말고 새 거즈를 추가로 덮어 붕대로 한차례 더 감고 손으로 출혈부위를 더 세게 압박해 본다.

사지에서 출혈이 있을 경우는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줌으로써 출혈량을 줄일 수 있다. 출혈을 멈추기 위하여 지혈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지혈대는 다른 방법으로 출혈

을 멈출 수가 없을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신경이나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팔이나 다리에 과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시간마다 지혈대를 풀어서 출혈부위 조직의 과사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혈대를 이용한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써 지혈이 어려운 절박한 상황 하에서만 활용되어야 하며 지혈시간을 반드시 표기하여 일정한 시간마다 풀어주도록 하여야 한다.

박경화 /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브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여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